광주시교육청, 문화예술 장학생 선발

음악·연극 등 고등학생 인재 5명 선발

장학증서·장학금 백만원씩 지급 격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7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보인 광주 고등학생 5명을 선발해 장학증서와 장학금 백만 원씩을 지급했다.

시교육청 문화예술 장학생 선발은 예능 인재를 육성해 문화예술 인적 기반을 확충하고,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어이지고 있다.

이번 장학생들은 평소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 각종 문화예술 경연대회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발됐으며 향후 광주의 예향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해 광주를 빛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장학생 중 한 명인 광주예술고등학교 조영훈(2) 학생은 오스트리아 음악협회가 주최한 비엔나 청소년 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비엔나 대상을 수상했다. 함께 선발된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최혜민(2) 학생은 제22회 전국청소년연극제(작품명: 우리집이야)에서 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이동건(2) 학생은 한양대학교가 주최한 제34회 전국 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에서 한국무용부문 금상을, 광주예술고등학교 유주하(2) 학생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박현정(3) 학생은 조선대학교가 주최한 제55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에서 각각 기초디자인부문과 칸만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교육청 최숙 혁신교육과장은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최선을 다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격려했다"며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 학생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SCNU 창의인재교육 프로그램' 미래 인재 육성

교수진 직접 고교 방문 토크콘서트 형식 교양 강좌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기남)가 'SCNU 창의인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예비 입학생을 발굴·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SCNU 창의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연구 성과를 연계해 예비 대학생들의 교양과 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본교 교수진이 직접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인간·자연·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융합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교양 강좌를 진행한다.

지난 달 19일과 22일 광양백운고등학교에서는 김지영 교수(영상디자인학과)의 4차 산업시대 문화예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고, 이어 손영호 교수(사진예술학과)의 사진촬영 기술 강좌가 열렸다.

또 지난 13일에는 김선미 교수(교직과)가 여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심리 테스트를 병행한 심리상담 이해 강의를, 최현주 교수(국어교육과)는 팔마고등학교에서 교직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이병운 입학본부장은 "SCNU 창의인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아 발견과 인성 함양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백운고 해외교류도시 청소년홈스테이 체험수기집 발간

광양백운고가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샤먼(厦門)시 교류학교(과학기술고등학교)와 추진한 청소년홈스테이 체험수기를 모은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체험수기집에는 학생들이 상호 방문교류에 따른 활동사진과 우호도시 샤먼시에 대한 소개, 추진과정, 학생 소감문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시는 청소년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우호도시 우의증진 일환으로 국제청소년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백운고 청소년 대표단 20명이 중국 샤먼시를 방문했으며, 하반기에는 샤먼시 청소년 대표단 20명이 광양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홈스테이 교류는 파트너 가정에 머물면서 전통문화 체험과 공동수업, 교류활동, 선진지 견학 등으로 실시됐다.

광양=김승호 기자

완도중앙초 "우리 가족 힐링 여행 다녀왔어요"

완도군 완도중앙초등학교(교장 송미덕)는 지난 15일에 희망 학생 및 부모 25명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힐링여행을 다녀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본 체험학습은 평소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가족 간의 화합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활동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호두까기인형 가족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연말연시에 많이 공연되는 본 공연을 관람하며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음은 외식체험이었다. 비싼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으며 풍족함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공방을 방문해 스칸디아모스로 액자를 꾸며보는 체험을 했다. 천연 이끼로 액자를 꾸미는 활동을 가족이 힘을 모아 해보면서 가족 간의 화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본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가족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행사를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내년 75세, 꿈 많은 여고생 정영자氏

"운이 좋아 두 인생을 사는 사람"

현재 목포제일중학교 3학년 재학…문인화 동아리 생활도

정영자(74세)씨는 전북 고창에서 7남매의 맏딸로 태어나 6.25사변이 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전쟁이 나면서 학교를 못 나간 것이 끝내 배움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섯 명의 동생들 공부하는 어깨 너머로 익힌 한글로 평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다.

남편과 사별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살던 중 며느리 소개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프로그램'에서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 문해반 졸업을 하면서는 중학교에 입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 나이에 중학교에 가면 뭐할까. 하지만 곁에 있는 문해반에서 한글공부 10년 했다는 사람도 나와 별다를 게 없었다. 해마다 같은 글자 같은 내용만을 반복할 뿐 새로운 것이 없었다.

중학교는 영자 씨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세계였다.

73세 중학교 1학년.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의 차를 타고 목포제일정보중학교에 도착하면 아직 교문도 열지 않은 상태이다. 학교 주위를 몇 바퀴 돌며 운동하다가 문이 열리면 1등으로 등교하여 공부할 준비를 한다. 국어 영어 사회 컴퓨터 한문 등의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어느새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린다. 알아듣는 것은 알아듣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공부 욕심부리지 않으니 학교생활이 즐겁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자랑스러울 뿐이다.

오후에는 문인화 동아리에 들어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수묵화에 푹 빠지기도 한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1년은 컴퓨터가 무서워 빙빙 돌기만 했다. 그러다가 한 번 도전해보자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조금 겁도 났다. 그런데 참 신기했다. ㄱ을 누르면 ㄱ이 나오고, ㄴ을 누르면 ㄴ이 나오는 것이 참 신기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누르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져서 쓰고싶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손녀에게 컴퓨터 좀 가르쳐주라고 했더니

"할머니 자판 연습이나 더 하세요." 한다. "그래, 오냐오냐. 내 강아지."

학교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오면 숙제도 하고 책도 보고 바쁘다. 시간 참 잘 간다. 학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긴 시간을 어찌 TV만 보고 앉아있었을까. 밤에도 잠이 안 올 때는 벌떡 일어나 한자를 한 자씩 써내려간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이 온다. 매일 밤 꿀잠이다.

새해, 75세에는 꿈 많은 여고생이 된다. 영자 씨는 공부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목욕탕 월권 끊어서 매일 목욕만 다니면 뭐해? 그리고 노인당에서 십 원짜리 화투치면 뭐한당가?"

한 자씩 배우는 기쁨 속에 74세 중학교 3학년 영자 씨는 오늘도 즐겁다. 영자 씨에게 두번째 인생을 선물한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신입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무안교육지원청, 21C 독립운동가 역량 강화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항일 독립운동 역사·문화 탐방을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4박 5일) 초·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항주, 가흥 등 중국일원에서 탐방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중국 역사·문화 탐방은 지난 7월부터 실시했던 중국문화체험 캠프 활동 시 인성평가와 자기소개, 중국어 인터뷰 등을 통한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하며, 사전활동으로 두 차례 사전 캠프를 통해 공동체 세우기, 국제예절 교육과 모서리 토론, 큐브 토론 등 다양한 토론활동을 통해 21C 독립운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탐방 후에는 성장 열매 나누기, 책거리 등 사후 캠프도 실시 할 계획이다.

무안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탐방은 '우리는 21C 독립운동가, 성장일기를 쓰다'라는 주제아래 항일 독립운동의 산 현장을 탐방하고, 중국의 문화도 체험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광 주 지 국 안 내

계 림	010-3635-7195	백 운	010-2943-8374
중 앙	010-3365-6200	광 산	010-5604-6533
학 운	010-4166-1810	송 하	010-8620-1925
광 천	010-6612-8599	임 동	010-2656-4543
금 호	010-6636-2775	양 산	010-2646-3205
상 무	010-5359-7406	오 치	010-7532-3313
풍 암	010-6634-5084	북 구	010-4601-2080
화 정	010-8438-3819	동 운	018-611-7751
봉 선	010-9474-0212	용 봉	010-4601-2080
진 월	010-2615-8374	두 암	010-2684-6091

◆ 시 외 안 내

강 진	010-4606-0660	영 암	010-5655-2415
담 양	010-3629-9016	완 도	010-9578-5900
무 안	010-5234-2313	장 성	010-5287-7711
보 성	061-853-9125	장 흥	010-6234-6226
순 천	010-2300-9083	진 도	010-3081-5203
광 양	010-5604-6981	함 평	010-3625-3160
여 수	010-6655-8503	화 순	010-2077-6464
영 광	010-3611-3081	곡 성	010-3615-1088